

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마스크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 같이 세상이 날뛰는 걸 보게 되니 공교롭게도 ‘과거는 부도난 수표에 불과하며, 미래는 약속어음일 뿐이라, 오직 내 손에 쥔 현찰(마스크)만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는 말이 떠올랐다. 병과 죽음을 담보로 두려움을 팔던 보험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꽤 된 멘트다. 그 보릿고개에 여러 돌림병시절을 보낸 어른들이 본다면 ‘집에서 놀명도 그까짓 마스크 혼 번 땀글어 볼 생각도 으시, 그자 정부가, 정부가 허명 느 똥까지

이 시절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뉘아주ئن 허명시냐?’ 그럴 거다. 어느 샌가 우리 국민들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는 응석받이가 되어버렸는지 우려 될 정도다. 감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자기 안에 유패시킨 이 무기력이, 무능한 정부 탓만 하면서 스스로 무능한 국민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 오래지도 않은 시절에 남자 어른들은 손수 집도 짓고, 여자 어른들은 옷을 지어 가족을 부양하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른으로서 민낯을 바깥까지 드러내는 부끄러운 시절이다. 흠어져야 살아남는다는 정국의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이 그리운 이웃들은 가끔씩 얼굴만 잠깐 빼꼼 내밀고 밖을 살피다 소라고동마냥 쏙속 들어간다. 가까운 장레나 혼레에는 품앗이

걱정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다가 서로 무탈함을 확인하고서 모여 있는 즐거움에 들떠 잠시 두려움을 잊고 웃다가 돌아가곤 했다. 코로나19로 부터 멀리, 가급적 더 멀리 도망친다 한들 혼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생소한 병마보다 격리라는 두려움에 더 크게 느끼는 때문일 거다. 까뽀의 ‘페스트’에서처럼 ‘따라서 우리 역시 페스트 치하에 섬이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오로지 더 이상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희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잇달아 쓰러지는 의료진들 소식에, 대도시들이 둔보다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천지 기부금 120억원을 거절했다는 다른 소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러는 어둡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쓸데없는 권위로 ‘나쁜 시민을 배척하는 게 우선’인 관치의 한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변은 “글쎄, 신천지 기부금 수용여부를 대구시민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했냐고? 시장이 뭘데 맘대로 거절해? 소중한 의료진들마저 죽어 나가는 판에 개밥보다 못한 끼니를 때우게 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친 말들이 흩, 솟구치다가 쯤, 사라진다. 병마의 권위는 불평마저 꺾어버리나 보다. 참으로 하 수상한 시절이다. 총선 후보들은 가급적 말을 아끼고, 소꿉음으로 농사를 짓듯이 한뼘 한뼘 손바느질로 정성을 다해 마스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표’를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열린마당

해녀의 꿈, 해녀의 전당 건립



윤 영 유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장

해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 있는 살아있는 보물로서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다. 제주도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해녀를 활용한 ‘여성 해양문화 메카’를 조성함으로써 해녀문화 세계화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총 180억원을 투입해 기존 해녀박물관 부지내 ‘해녀의 전당’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녀의 전당에는 국내·외 분포하고 있는 한국해녀들의 삶을 모은 종합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에 개관한 해녀박물관이 있지만 제주해녀의 의식주, 도구, 영상 및 전시·공연주제 등이 한정돼 한반도와 일본, 러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외 해녀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해녀의 전당’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5년 제주해녀어업이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과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2017년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세계 중요어업 유산(FAO GIAHS) 등재가 2차 보완이 제출돼 이제 남은 절차는 현지실사와 등재 뿐이다. 이처럼 ‘해녀의 전당’ 건립에 대한 여건 조성이 이뤄진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해녀의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앞으로 본 사업이 대한민국 여성해양문화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국내외에 공유·확산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해녀자본을 보유한 가진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에 민간차원에서는 시도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전국 시도 해녀 협의회’를 구성·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JDC,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책임 논의

제2차 분과장 연석회의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추진. JDC는 지난 12일 본사에서 제2기 JDC 소통위원회 제2차 분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 재난 극복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이문교 소통위공동위원장은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실무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지지하 있도록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고대로기자

‘건강한 직장 만들기’ 추진

○…서귀포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기했던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 중 일부 개별 프로그램을 전개. 이 사업은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추진.

보건소 관계자는 “6개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지역 방문 직원의 2주 경과 후 프로그램 참여와 체온측정·호흡기질환 유무 확인을 거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호응

○…학교 개학 연기로 급식자체 납품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채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가 호응.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3일 1차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28박스를 판매한 데 이어 오는 20일 2차 판매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첫날인 지난 16일 주문이 몰려 하루만에 조기 마감.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 판매된 농산물 품질이 좋다 보니 2차에서 호응이 더 좋았다”며 “전체 주문량이 900박스인데 이 중 절반 가량을 일반 도민 등이 주문했다”고 귀띔. 김지은기자

사설

수도권 감염 속출, 지역 방역망 우려된다

제주는 사실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지역 사회에서 감염사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주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제주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그릴만도 합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는 16일 0시 기준 제주 3번 확진자(48·여)와 4번 확진자(46·남)의 모든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 다. 이에 앞서 1번 확진자와 2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지난 8일까지 모두 격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 다. 특히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2번 확진자(22·여)와 3번 확진자는 지난 7일과 15일 각각 퇴원했습니 다. 나머지 1번 확진자(22)와 4번 확진자는 제주대병원에서 치

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접촉했던 도내 자가격리자가 모두 해제돼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이 갈수록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가 대구·경북을 앞질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번지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분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역시 지역사회의 방역망을 재점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추선 안됩니다.

16년 만에 나온 4·3 추가진상보고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 의 ‘4·3조사보고서’ 이후 16년만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 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당시 마을별 전소조사를 통한 피해실태와 집단학살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및 예비검속 피해실태, 행방 불명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담았습니다. 주목되는 사실은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낸 집단학살사건이 무려 26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도화작전 시기인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사이 정방 폭포 일대, 함덕백사장·서우봉, 북촌초등학교, 성산 터진목, 표선백사장, 도두리 동박꽃흙 등 곳곳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또 수형인 행방불명자 2261명에 대한 피해실태도 규명됐습니 다. 경인지역과 호남지역 형무소 수형인 피해실태 중 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4·3수형인의 경우 한 국전쟁 발발로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북한 인민군으로 전장에 투입되거나 월북된 기구한 운명과 사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 다. 4·3위원회에서 작년 말까지 확정된 희생자 1만4442명을 기존의 본적지 중심에서 당시 거주지 중심으로 재분류함으로써 피해실태 오류 최소화에도 역점을 뒀습니 다. 4·3평화재단 측은 “2003년 정부 보고서가 진상규명을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 보고서는 피해유형을 나뉘 전체 피해를 조망한 게 특징”이라는 의미를 달았습니 다. 4·3사건 진상을 캐는 작업은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미신고·미확인 희생자 추가 조사를 비롯해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재외동포 피해실태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속돼야 합니다. 정치권도 2년 남게 국회 계류 중인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 고

김창구(주)퍼시픽투어 전무이사) 아버지 김해김공 병찬(오현고 3회·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7일 12시 08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1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19일(목요일)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용강 선영

부 인 고 순 화

아 들 김 창 구 며느리 우 영 영

딸 김 은 영 사 위 김 정 훈

※ 연락처 : 김창구 010-3699-2654
김은영 010-6633-7136

부 고

고성균(주)이마트) 아버지 제주 고공 권형(성일운수(주) 대표·향년 79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6일 11시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1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19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빈소
▶장 지: 성산 수산 가족선영

부 인 오 만 순

아 들 고 성 균 며느리 홍 형 숙

용 훈 이 윤 복

딸 고 은 아 사 위 이 희 문

※ 연락처 : 고성균 010-9827-575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수원백씨 술생(향년 9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18일

아 들 채 종 인 며느리 홍 영 자

딸 부 임 사 위 현대 진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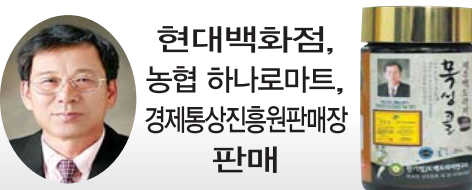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태순(향년 8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18일

부 인 김 복 희
아 들 문 창 호
딸 문혜영 사 위 김원태
문지영 김원근
문혜정 김현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